

How Long, O Lord? May 14th, 2017 Alan Every

We live in difficult, violent times. Daily, we're confronted with some form of violence, either here or overseas. Last month, Syria used chemical warfare on its own people. A few days later more than 40 Coptic Christians were killed by suicide bombers in Egypt. In Australia,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are common in the media. It is right for us to ask: "When will it all end? What will God do about it?"

우리는 힘들고 폭력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호주, 또는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폭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리아는 자기 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며칠 뒤 이집트에서 자살폭탄 테러범에 의해 40 명이 넘는 콥트 크리스천들이 사망했습니다. 호주 미디어에서는 가정 폭력에 대한 보도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라고 묻는 것이 맞습니다.

Habakkuk is a prophet who speaks into our situation. Yet, he was writing in the last part of the seventh century (i.e., in the 600s) BC. That was a long time ago.

Habakkuk himself is a mystery. The most reliable information about him is in 1:1, *The oracle that Habakkuk the prophet received*. Literally, Habakkuk saw this *oracle* (a word that can also be translated as 'burden'). The word pictures that he paints for us are so dramatic that we too can almost 'see' what Habakkuk is describing.

하박국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7 세기 BC 마지막 때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 전 일입니다. 하박국 자신도 미스테리였습니다. 그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정보는 1 장 1 절에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문자 그대로 하박국은 이 경고 ('부담' 이라고도 번역 될 수 있는 단어)를 봤습니다. 그가 글로 그리는 그림들은 너무 선명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거의 다 볼(see) 수 있을 정도입니다.

Truly, it was a burden Judah would bear. God was raising up the Babylonians to be His instruments of divine justice. For, amongst God's people in Judah, there's injustice and violence. However, the Babylonians practice an even more intolerable form of justice. In turn this leads Habakkuk to question why God would allow a lawless and ruthless nation bring justice upon Judah.

진실로 이것은 유다가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사용 하시려고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부당함과 폭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에 대해 견딜수 없는 정도의 가혹한 처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무법천지인 무자비한 나라가 유다를 재판할 수 있게 허락 하셨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Before going any further let us briefly consider some historical background to Habakkuk's oracle. The Assyrian Empire had been the dominant power in the Near East. Towards the end of the 7th century BC the Assyrian Empire's power faded. This was the time when Josiah, Judah's godly young king, reigned. Meanwhile, the Babylonian Empire was asserting itself as a significant threat.

더 나아가기 전에 하박국의 경고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앗시리아 제국은 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7 세기가 끝나갈 때쯤에 앗시리아 제국의 힘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때는 유다의 경건한 어린 왕인 요시아가 다스릴 때 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제국이 아주 위협적인 상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In 609 BC, Neco, the king of Egypt, fought against Josiah and killed him (2 Kings 23:29-30). His death was a disaster for the Jews. He had been a just and merciful ruler.

Josiah's son, Jehoahaz, then came to the throne. He was an evil king. Three months later, Egypt's king Neco deposed Jehoahaz and took him captive to Egypt. Another of Josiah's sons, Jehoiakim, became king. 2 Kings 23:37,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had done*.

In 605 BC, Nebuchadnezzar, the Babylonian prince, fought Egypt's king Neco (Jeremiah 46:2). Before long, Egypt, Syria and Palestine came under Babylonian control. Jehoiakim now had to swear allegiance to Nebuchadnezzar. But by 601 BC Jehoiakim had broken his promise to Nebuchadnezzar (2 Kings 24:1). Then, (2 Kings 24:2), ***The LORD sent Babylonian, Aramean, Moabite and Ammonite raiders against him.***

기원전 609년 에 이집트의 왕 느고는 요시아와 싸워 그를 죽였습니다 (왕하 23:29-30). 그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큰일 이었습니다. 요시아는 공정하고 자비로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3 달 뒤 이집트의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 시키고 포로로 이집트에 데려갔습니다.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 장 37 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왕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왕 느고와 싸웠습니다 (렘 46:2).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제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기원전 601년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왕하 24:1). 그리고, (왕후 24:2), ***여호와께서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냈습니다.***

After a very brief reign by Jehoiachin, the son of Jehoiakim, Nebuchadnezzar placed Zedekiah on the throne. He was another of Josiah's sons. But after nine years, he rebelled. This time the Babylonians destroyed Solomon's temple in Jerusalem. The dynasty of Judah's kings was ended. Many people were deported to parts of the Babylonian Empire. Habakkuk truly lived in violent times.

Habakkuk begins by telling God his complaint in 1:2-4. He expresses his grief about what's happening amongst his people. His first cry is (1:2) ***How long, O LORD, must I call for help and you do not listen? Or cry out to you, "Violence!" but you do not save?*** Clearly, he'd been crying out to the Lord for some time. And, his prayer for justice hadn't been answered.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주 짧은 기간동안 다스린 뒤에, 느부갓네살은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9년 뒤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왕조가 끝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 여기저기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박국은 정말로 폭력적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박국은 1:2-4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이야기하며 시작 합니다. 그는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비통함을 나타냅니다. 그의 첫 부르짖음(1:2)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입니다. 하박국은 오랜 시간동안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위한 그의 기도는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Yet Habakkuk wasn't the first one to call for God's people to walk rightly before Him. We read in Numbers 14:11 about God's cry against His rebellious people. ***The LORD said to Moses, "How long will these people treat me with contempt?"*** And that wasn't even the first complaint that God had ever had against Hi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부르짖은 것은 하박국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4:11에 반항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첫번째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Nor would this be the last complaint in Scripture. In Revelation 6:10 we read about the saints crying out in heaven. They also long for justice. ***They called out in a loud voice, "How long, Sovereign Lord, holy and true, until you judge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nd avenge our blood?"***

그렇다고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10 절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르짖는 것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공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God's silence is almost intolerable to Habakkuk. His second cry is in 1:3a,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Why do you tolerate wrong?*** Habakkuk continues with his complaint. 1:3b, ***Destruction and violence are before me; there is strife and conflict abounds.*** For emphasis, he uses three pairs of words, where one or two words would've been enough—***injustice...wrong; Destruction and violence; strife and conflict.***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은 참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의 두번째 부르짖음은 1:3a 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은 계속하여 불만을 이어갑니다. 1:3b,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강조하기 위해 그는 한,두 단어로 충분할 것을 3 쌍의 단어들로 표현했습니다 - 죄악...패역; 변론과 분쟁; 겁탈과 강포.

Josiah had been a good king. But his sons, Jehoahaz, Jehoiakim and Zedekiah caused much trouble, leading up to the Babylonian exile. The Judean society was spiritually bankrupt and morally corrupt. Habakkuk's problem is that God doesn't seem to be doing anything to overcome this evil.

요시아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추방당하기 까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유대 사회는 영적으로 파탄되었고, 도덕적으로 타락 했었습니다. 하박국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It's debatable whether one generation is more corrupt than any other. Wickedness goes back to Adam and Eve. However, violence can increase from time to time. Clearly, this had happened in Judah. Yet, in recent years we've witnessed greater violence in the Middle East than has been known in for a long time. Violence is increasing here in Melbourne. In September 2016, *The Age* newspaper referred to Victoria as the murder capital of Australia.

어떤 세대가 다른 세대들 보다 더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악함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 됩니다. 하지만 폭력은 가끔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는 중동에서 지금까지 봤던 것 보다 더욱 심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폭력성은 멜번 에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6 년 9 월에 *The Age* 신문에서 빅토리아 주를 호주의 살인 수도라고 칭했습니다.

A few years ago, Queensland statistics showed that it's commonly accepted that 1 in 6 boys is sexually abused before the age of 18. And 1 in 4 girls is sexually abused before the age of 18. Frankly speaking, increasing violence reflects a more secular society. As our society turns away from biblical morality, we're finding ever-increasing violence. Many people are frustrated because the law hasn't protected people in the community from being abused and even murdered. Perhaps they should ask themselves why this is so.

몇 년 전에 퀸스랜드의 통계에 의하면 6 명중 1 명의 남자아이는 18 살이 되기 전에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 4 명중 1 명이 18 살이 되기 전에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통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폭력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욱 세속적인 사회가 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성경적인 도덕성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전에 없이 늘어가기만 하는 폭력성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학대 당하고 또 살인까지 당하는

것으로부터 법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Habakkuk makes this point in 1:4, ***Therefore the law is paralysed, and justice never prevails. The wicked hem in the righteous, so that justice is perverted.*** He makes two significant points. *Firstly, justice is not done because the law is paralysed. Secondly, the wicked hem in [= surround] the righteous.*

하박국은 1:4 절에서 이점을 지적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는 두가지 중요한 의견을 냅니다. 첫번째로 법이 ***해이***했기 때문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In Victoria, animal abuse could land you in jail for 12 months. But you can abort an unborn child and get away with it.

Now, that's not an argument for approving of animal cruelty. Rather, I'm saying that we ought to care more for human life, especially for the unborn. In 2006 more than 71,000 babies were aborted in Australia. And what happened in Victoria recently? The parliament passed laws making abortion legal.

빅토리아 주에서 동물학대는 최대 12 개월 감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낙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학대를 찬성한다는 논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특히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목숨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6 년도에 71,000 이 넘는 아기들이 호주에서 낙태 됐습니다. 최근에 빅토리아 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회가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Christians feel trapped by the wickedness in the society around us. State and federal leaders have allowed wickedness to triumph. To make matters worse, there is growing intolerance towards Christianity.

크리스천들은 우리를 둘러싸는 사회의 사악함에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주 및 연방 지도자들은 사악함이 승리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편협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Like Habakkuk we want to know why God doesn't do something. We've prayed that the bills in parliament would be defeated. Our prayers were not answered.

Sometimes, we too wonder if God hears our prayers. Are the deists right? Did God just create the universe only to stand by and watch it return to chaos? How long can God simply do nothing and say nothing? Doesn't He hear our prayers?

하박국처럼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의회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합니다. 자연신론자들이 맞는걸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시 혼돈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 보기 위해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나?

In 1:3a we get the impression that Habakkuk would be glad to get rid of the whole situation.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Habakkuk wants to shut his eyes and pretend that the wickedness and violence could simply disappear. His questions are valid. Why do good people suffer? Why do the ungodly flourish? Why are justice and mercy disregarded? What is the point of praying? What is the point of having faith in God? What kind of God is He, who allows evil to prosper and the godly to suffer?

1:3a 에서 우리는 하박국이 이 모든 상황이 없어져버리기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하박국은 눈을 닫고 이 모든 악함과 폭력이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의 질문들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 좋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까요? 왜 경건하지

많은 사람들이 잘되는 것일까? 왜 정의와 자비는 무시당할까?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 의미 있을까? 어떤 하나님이지길래 악이 번창하고 경건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Habakkuk makes a strong point. But then, when God speaks, it's not what he expected to hear. Twice in 1:5a God uses words of seeing. **"Look at the nations and watch—and be utterly amazed."** In 1:1 Habakkuk literally *saw* this *oracle*. In 1:3 he complained that he had to *look at injustice*. God now says, 'See what will happen'.

하박국은 강력한 주장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예상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1:5a 에서 본다는 의미의 단어를 두번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1장 1절에서 하박국은 문자 그대로 이 경고를 보았습니다. 1:3 에서 그는 **죄악을 보게** 하였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1:5b gives the reason for Habakkuk's future amazement. **"For I am going to do something in your days that you would not believe, even if you were told."** Everyone would see what God would do. Habakkuk's problem (and ours) is that he was caught up in his own set of circumstances. He was viewing life as though through a set of horse's blinkers. And so he'd been sucked down in a spiral of doubt and despair.

1:5b 는 하박국이 미래에 놀라게 될만한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는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그가 자기 자신의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가리개를 한 말처럼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심과 절망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Paul quotes Habakkuk 1:5 in Acts 13:41. Paul warns the Jews that forgiveness of sins is found in Christ alone. Paul would now turn away from preaching Christ to them. From that time on, he witnessed to the Gentiles. As a result, the Jews stirred up the men of city. Those men then drove Paul and Barnabas out of the city (Acts 13:50).

바울은 사도행전 13:14 절에서 하박국 1:5 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은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방인들에게만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시민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행 13:50).

The Apostle Paul is warning the Jews about how God judged His people in Habakkuk's day. It could well happen to the Jews in Paul's day, at any time. And, in AD 70 Jerusalem was burned and the temple destroyed by the Romans. Thousands of people were killed.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시대에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 하셨는지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어느때에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기 70 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은 불탔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Consider the lawlessness we see today. Is it any different? People mock God with their immoral behaviour. Government's mock God by passing laws that approve of their immorality. Maybe I've told you about the man who mocked God. He gleefully exclaimed that God hadn't struck him dead. For him, there was no problem.

요즘 세대의 무법함을 보십시오. 과연 그때와 다를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정부는 부도덕을 허락하는 법을 통과 시킴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던 남자에 대해 제가 말씀 드렸었을 것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Don't ignore the warnings in Scripture. There will be a day of judgment. When Christ returns we'll all have to give an account of the life we've lived. Paul writes (Acts 17:31), ***"For he [God] has set a day when he will judge the world with justice by the man he has appointed [Jesus]. He has given proof of this to all men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Our beliefs and behaviour have consequences.

성경에 써져 있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라고 합니다 (행 17:31).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But Christians have hope. We can stand before God with confidence. At the cross, the Lord Jesus paid the price for our sins. The Lord Jesus said, (John 5:24),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24 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So God doesn't answer Habakkuk's complaints. He even tells him that something incredible will happen. Habakkuk 1:6 reveals God's astonishing plan. ***"I am raising up the Babylonians (the Chaldeans), that ruthless and impetuous people, who sweep across the whole earth to seize dwelling places not their own."*** This would happen soon. The most incredible part was that God's own people would suffer. They would be given into the hands of the Babylonian's, who were more wicked than they were! Babylon would soon ***sweep across the whole earth.***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불평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하박국에게 말해 주십니다. 하박국 1:6 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보다 더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바벨론이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닐 것*** (전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Someone once said, ***'Those who ignore history are condemned to repeat it.'*** This could well apply to Judah. Eight hundred years earlier Israel had displaced the Canaanites. The latter were driven out because of their sin. Now, Judah would be driven away from this land because of their sin.

어떤 사람이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역사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800 년 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추방 시켰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유다가 그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God gives Habakkuk a vivid picture of the Babylonians. 1:7-9a, ***“They are a feared and dreaded people; they are a law to themselves and promote their own honour. Their horses are swifter than leopards, fiercer than wolves at dusk. Their cavalry gallops headlong; their horsemen come from afar. They fly like a vulture swooping to devour; they all come bent on violence.”***

하나님께서서는 하박국에게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1:7-9a,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져 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God turns Habakkuk’s words back on him. Judah was lawless, but Babylon was ***a law to themselves***. Violence characterised Judah, but the Babylonians were ***bent on violence***. Judgment would come swiftly, terrifying the people of Judah and Jerusalem.

하나님께서서는 하박국이 한 말을 그대로 하박국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는 무법상태 였지만 바벨론은 ***스스로가 법***이었습니다. 유다는 폭력적이었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강포를 행하러***왔습니다. 심판은 신속히 다가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The Babylonians disregarded God and His righteousness. They’d make their own truth standards ***and promote their own honour***. Babylon’s armies have been described as the finest and best in the world. Capable of moving quickly across vast distances, these armies were arrogant bullies. We read more about them in 1:9b, ***“Their hordes advance like a desert wind and gather prisoners like sand.”*** Fearless, we read in 1:10, ***“They deride kings and scoff at rulers. They laugh at all fortified cities; they build earthen ramps and capture them.”*** Yet while the Babylonians ***sweep across the whole earth*** (1:6), just as suddenly they’re gone. 1:11, ***“Then they sweep past like the wind and go on—guilty men, whose own strength is their god.”*** The Lord gives Habakkuk and his people a taste of greater things to come.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진실기준을 만들었고 ***스스로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광대한 지역을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이들 군대는 거만한 불량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1:9b 를 보면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1:10)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는*** (1:6) 도중에, 그들은 갑자기 없어져버렸습니다 (1:11)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과 그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위대한 일을 먼저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From the second part of this chapter we learn four things. *First*, God is a righteous Judge. He knows everything that takes place on the earth He created. When sin occurs, God will punish it, even when it involves Him punishing His own people.

이 장의 두번째 파트로부터 4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처벌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라도 처벌을 합니다.

Second, God is sovereign over all of the earth. If deny it, then we deny God His rightful place in our lives. On the other hand, if we believe that God is the sovereign Creator, who is in charge of His universe, then our part is to trust in His providence. We are to trust in His care for what He has made and who He has made.

The Babylonians *strength is their God*. Arrogance would be their downfall. As F. F. Bruce notes, **In the self-sufficiency and self-congratulation displayed by such rulers lay the seeds of their collapse.**

두번째, 하나님의 이땅위의 모든 이들을 통치합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우주에 대해 책임이 있는 창조주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에 대한 그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강점은 그들의 신**입니다. 오만함으로 인해 그들은 몰락했을 것입니다. F. F. Bruce 가 말했듯이 그러한 지배자들이 보여준 자급자족과 자축함 속에 그들의 붕괴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Third, God does hear and answer prayer, though His answer may not be what we want to hear. In prayer, we cannot come to God with a wish list and expect Him to provide everything. God is not Santa Claus. Then again, Santa can't provide anything. Santa doesn't exist. God's ways and His thoughts are not our ways and thoughts. His are far higher. We can only hope to think His thoughts after Him.

세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소원목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산타는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산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그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기를 바랄 수 있을 뿐입니다.

Fourth, under the hand of God, nations will rise and fall. God can even make use of the vices of men to execute His judgment. Even the wicked can be an instrument of His justice.

Like you, I long to see an end to injustice and violence. But that won't happen until the Lord Jesus returns. We also long for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But that won't happen either, until the Lord Jesus returns.

It seems strange that God used a more violent nation to humble His rebellious people. You and I might wonder how He could use injustice to bring about justice. Yet that's exactly what God did in the sacrifice of His Son, Jesus.

네번째,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국가들은 흥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이행하기 위해 인간의 부도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악독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죄악과 강포가 끝나버리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새하늘과 새땅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반항하는 백성들을 비천하게 하기 위해 보다 폭력적인 국가를 사용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정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죄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In Acts 2:23 the apostle Paul is speaking about the 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by God's set purpose and foreknowledge; and you, with the help of wicked men,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the cross."***

사도행전 2:23 에서 사도 바울은 주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God was working behind the scenes in the death of Jesus. Even so, those who crucified the Lord are accountable for what they did. But then, God brought the Lord Jesus back to life. He was satisfied with the death the Christ for our sins.

하나님께서서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안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God alone knows all things. He alone can control and use history for His purposes. He uses believers to bless His children. But there will be times when he uses the wicked to discipline, and to bring about repentance and faith. At other times, bad things happen to us in order to strengthen our faith.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역사를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믿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훈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불러오기 위해서 악한자를 사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안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Today, many people express their anger by saying that if God were good then He'd totally make an end to all evil and violence. But, where should God start? For, if He were to remove all evil then no one could stand. No one could live. No one is perfect. And God demands absolute perfection to live in His kingdom.

오늘날, 만약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모든 악과 폭력을 완전히 없애버릴텐데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만약 모든 악을 없애버린다면 과연 누가 살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완전함이 필요합니다.

God says to Habakkuk in 1:5, ***“Look at the nations and watch—and be utterly amazed. For I am going to do something in your days that you would not believe, even if you were told.”***

The most amazing thing God has ever done was to send His Son, Jesus. The Lord Jesus is the one way for you and me to get right with God. His death on cross for our sins is the most incredible way for us to be reconciled to God.

하나님께서서는 하박국 1:5 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중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믿기 어려울만큼 대단한 방법입니다.

God is asking Habakkuk to trust in Him. He works out His purposes for His glory. Though Habakkuk, His prophet, God asks us to trust that His ways are perfect. Times change. Evil days are with us. But God doesn't change. His love for His people is steadfast and sure. Christ's resurrection from the dead confirms to us that His promises are true. Evil may prosper for a time. But our lives are safe and secure in our God's hands. Amen

하나님께서서는 하박국에게 그를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목적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나날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악은 잠시 흥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항상 안전합니다. 아멘